

# 이태극 시조에 나타난 노년, 죽음의식 연구

박 영 우(경기대)

##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자아성찰을 통한 죽음의식의 육화(肉化) |
| 2. 자연 심상을 통한 노년의식의 형상화 | 5. 맺음말                   |
| 3. '채움'을 지향하는 그리움의 공간  |                          |

## 1. 머리말

월하(月河) 이태극(1913-2003)<sup>1)</sup>의 문학사적 위치는 현대시조의 여러 양상 중 내용상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호혜적으로 공존하는 균형감각으로, 형식상으로는 정형의 율격을 파괴하지 않고 안정된 시상을 유지하면서 우리말의 아름다운 변형을 꾀하는 장인의식으로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우리 시조사에서, 정형시의 미학을 훌륭히 견지하면서도 근대적인 자기 인식과 자연-인간 사이의 유추적 관계를 형상화한 매우 중요한 시조시인으로 기록될 것이다.<sup>2)</sup>

1) 1913년 강원도 화천군 출생으로 1950년(38세)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53년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1978년 정년퇴직 때까지 고전문학 및 시조 연구와 창작에 몰두해왔다. 특히 1960년 시조 전문지 『시조문학』을 창간하여 편집인고 발행인을 맡아왔으며 특히, 1964년 한국시조시인협회가 발족된 이후 협회 부회장 및 회장직을 거치면서 가람 이병기 이후 한국 현대 시조문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2) 유성호, 『자연과 인간의 공존, 시조를 통한 자기 인식; 월하 이태극의 시조 세계』, 『배달말』,

그의 시조집으로는 제1시조집 1970년 동민문화사에서 발행된 『꽃과 여인』을 시작으로 『노고지리』 일지사 1976, 『소리·소리·소리』 문학신조사 1982, 『날빛은 저기에』 시민문화사 1990, 『자하산사 이후』 토방출판사 1995, 『진달래 연가』 태학사 2001, 등이 있으며 시조 연구 저서로는 『시조연구논총』 을유문화사 1965, 『현대시조작법』 정음사 1981, 『현대시조의 이론과 실제』 동백문화 1990, 『덜고 더한 시조개론』 반도출판사 1992,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2010년 간행된 『월하 이태극 시조 전집』을 텍스트로 하여 1990년 이후 2003년 작고할 때까지 쓰여진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시조에 나타난 노년과 죽음에 관한 시의식의 표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의 노령화 및 고령화 현상이 현저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사회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학에서도 문화 지형도를 바꾸어 놓고 있다. 소설의 경우 한국현대소설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김승옥, 이청준, 최일남, 박완서, 오정희 등은 자신과 한 시대를 공유했던 작가들의 ‘나이 듦’을 자신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는 ‘노년문학’이 작가와 독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적절하게 구비한 장르로서의 위상과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sup>3)</sup>

시조문학에서도 ‘노년’과 ‘죽음’의 문제는 시조시인이 삶을 성찰하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제재이다. ‘나이 듦’과 ‘죽음’은 인간 앞에 놓인 숙명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태극 시인의 노년기 작품들을 탐구하는 일은 한 시인의 시적 의미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년층의 객관화된 내면을 살핀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 2. 자연 심상을 통한 노년 의식의 형상화

이태극 시인의 시조에서 나타나는 시적 표현의 특징은 자연 심상의 내면화라 할 수 있다. 초기 시에서도 그렇지만 78세(1990년) 이후 창작된 전집에 수록된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심상은 ‘꽃’, ‘나무’, ‘노을’, ‘물’ 등 자연과

---

배달말학회 36호, 234면.

3) 서형범, 「노년문학의 세대론과 전망」, 『시민인문학』 22호, 2002, 10면.

관련된 심상들이다. 이태극 시인은 자신의 초기 시편에서부터 자연과 인간이  
호혜적으로 공존하는 풍경을 담아왔으며, 거기서 동심에 가까운 순수한 내면  
을 유추시켜왔다.<sup>4)</sup> 보통 꽃은 생명성과 신비성이나 순결미 또는 영원한 생명  
의 존재 등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의 시조에 나타난 심상들은 미적 탐구 대상  
이거나 긍정적인 의식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세속에 살면서도 거기에  
안주할 수 없는 노년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가 자연 공간의 상관물 속에 깊이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술술술 영을 넘어/ 진달래도 피워보고  
훈훈히 나래 펴서/ 녹음도 지워 주고  
빨강게 불 태우다가/ 눈발 몰고 아우성.

가고 음도 밤도 낮도/ 거침없는 나들이길/  
어디서 어디로든/ 못 이를 곳 없건마는  
석양길 외진 언덕에선/ 목을 놓아 우는가.

- 「바람」 전문

‘바람’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시조는 팔십을 넘은 시적화자의 몸을 온  
전히 ‘바람’에 투사시키고 있다. 그 ‘바람’은 곧 팔십 평생을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흘러 다니던 육화된 바람이다. 두 수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작품은, 첫째  
수에서는 젊은 시절의 ‘바람’을 둘째 수에서는 노년 시절의 바람을 형상화하  
고 있다.

첫째 수의 초장과 중장에서는 청춘 시절에 뜨거운 열정으로 ‘진달래’ 같은  
사랑을 ‘피우기도’ 하고, 한 그루 나무가 되어 ‘훈훈히 나래와 녹음’으로 삶의  
절정기를 살기도 한다. 종장에서는 삶의 열정을 ‘빨강게’ 단풍으로 불태우다  
가 ‘눈발’처럼 시린 현실에 부딪히는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적 이미지와 계절을 대표하는 자연 이미지를 통해 강  
렬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둘째 수에서는 젊은 시절의 온갖 세파와 풍파를 견  
디고 노년에 이른 시적화자의 현재화된 ‘바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노년

4) 유성호, 앞의 논문, 239면.

이 된 지금도 ‘어디로든’ 다 갈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종장에서처럼 “석양길 외진 언덕에선 목을 놓아 우는가”하고 탄식을 하고 있다. 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내면의 욕망이 세월이라는 현실의 한계 앞에 안타까운 외침과 울음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꽃’을 제재로 하고 있는 다음 시조는 앞의 시조에 비해 한결 시적 대상에 동화되고 순화된 표현으로 다가서는 느낌이다. 자연의 이치를 따라 순응하면서 살고자 하는 시인의 시적 의도가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꽃도 피면 이우는 법/ 떨어짐 또한 자연이지만  
몰아친 광풍으로/ 휘날려 허공을 도니  
보는 이 가슴 가슴에도/ 허허로움 더하리.

역리가 순리됨도/ 세상의 흐름이라지만  
낙화를 순풍에 실어/ 제자릴 찾게 함도  
이 또한 다사로운 꽃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

휘몰려 날려진 꽃도/ 대지는 감싸준다.  
날빛과 습도 또한/ 번갈아 찾아준다.  
남은 향 고이 지니면서/ 이 한생을 다하리.

— 「낙화(落花)의 변(辯)」 전문

인용된 시조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된 표현이나 어조가 자연친화적이고 관조적이며 부드럽다. 어쩌면 장자에서 말하는 잡다한 외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의 사물에 집중함으로써 도를 얻어 늘어감도 잊은 채 일을 즐기고 있는 달생자(達生者)의 경지<sup>5)</sup>를 느끼게도 해준다. 이 작품은 1991년 79세 때 창작된 시조인데, 그해는 60여 년을 동고동락하던 부인이 별세하던 해이기도 하다. 물론 이 작품은 부인과의 사별 몇 달 전에 창작된 작품이긴 하지만 앞에서 인용된 「바람」에 비해 노년에 자연을 바라보며 느끼는 삶의 감회가 더욱 정화되어 포용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5) 유병래, 「장자 철학에서 노년의 삶」, 『시민인문학』 22호, 2012, 81면.

즉 자연의 순리가 시적화자의 내면으로 육화된 표현들이 인상적이다. 특히 둘째 수 중장에서 “낙화를 순풍에 실어”라는 표현 보듯이 “이제는 떨어지는 꽃마저도 순풍에 실어 보내겠다”는 화자의 의지와, 그것도 부족하여 중장에서 “다사로운 꽃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순리를 따라 진정한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시인의 의지가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낙화’의 의미는 죽음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미지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다사로운’, ‘감싸주는’ 낙화의 의미를 더욱 강조함으로써, 좀 더 남은 생을 여유롭고 자연스럽게 ‘남은 향’을 고이 지니면서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 하는 시인의 소박한 소망이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물매미’라는 동물적 제재를 통해 표현된 내면의식과 표현 방법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물 위를 감고 돈다/ 맑음 흐림 가림 없이  
 혼자라도 쌍으로도/ 쉬었다간 돌고 돈다.  
 그 물살 사라져가면/ 다시 감고 돌아온다.

땅거미 스며들면/ 풀줄기 풀줄기에 붙어 쉬고  
 날이 새면 다시 나와/ 그 줄길 감고 돈다.  
 지그시 눈을 감으면/ 나도 그냥 물매민 듯.

- 「물매미」 전문

이 작품에서는 일단 제재와 시적 공간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눈에 띈다.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정적인 동양화가 아닌 정중동(靜中動)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표현들이 인상적이다. 두 수로 이루어져 있지만 둘째 수 중장을 제외하고는 시적 대상과 공간에 대한 묘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묘사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들이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다. 즉, 시적 묘사 속에 시인의 시의식이 핏줄처럼 돌고 있는 것이다. ‘돈다’, ‘돌아온다’는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흘러가는 강물의 이미지를 통해 삶의 순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둘째 수 중장에서 “지그시 눈 감으면/ 나도 물매민 듯”이란 표현을 배치함으로써 나도 한

마리 ‘물매미’가 되어 시간처럼 흘러가는 강물 위를 흘러가겠다는 주제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육체적인 죽음이 오더라도 자연과 우주의 섭리 안에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은,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죽음이 아닌 자연 친화적인 죽음관을 드러낸다.

다음은 노년의 나이에 삶에 대한 인식을 제목에서부터 비교적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물도 흐르다간/ 바다로 드는 것이  
꽃도 피었다간/ 잎이 듣는 것이  
후회를 자늱이다가/ 아차 그만 뜨는 것.

극락이라 천당이라/ 한낱 바램일 뿐  
되돌아 올 수 없는/ 삶의 고비인데  
다듬어 보듬어 안고/ 난향(蘭香)으로 살으리.

- 「삶이란 1」 전문

이 작품은 시조가 지닌 전형적인 구조인 선경후정(先景後情)의 구성 방법을 택하고 있다. 첫째 수의 전경에 해당되는 초장과 중장에서는 역시 ‘물’과 ‘꽃’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다가 결국 종장에서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깨달음과 각성을 ‘아차’라는 감탄사를 통해 시적 긴장과 함께 일깨우고 있다. 그래도 둘째 수에서는 ‘극락’이나 ‘천당’을 가고 싶어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삶의 일회성에 체념적 자세를 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장에서는 “다듬어 보듬어 안고” 남은 생을 살아가고자 한다.

지나온 삶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 적응하며 또 다른 후회 없이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냥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난향(蘭香)’으로 살고 싶어 한다. 이처럼 시인은 자연 현상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자연 현상과 공존하는 인간의 시선을 유추하고 통합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호혜적으로 공존하는 풍경을 집중적으로 시화하였다.<sup>6)</sup>

이것은 시인이 살고 싶어 하는 정신적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년

6) 유성호, 앞의 논문, 242면.

에 창작된 대부분의 작품 속에 드러난 자연심상들은 자연과 하나 되어 육화되어 살다가, 결국은 그 품속으로 안기고자하는 포용적이면서도 정결하고 고결한 삶을 지키고 싶어 하는 시인의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 3. ‘채움’을 지향하는 그리움의 공간

문학작품을 공간 혹은 공간성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배경적 요인으로서 공간이 작품의 의미를 얼마나 의미 있게 확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탐구로 볼 수 있다. 즉 작품 내에 드러나는 공간은 단순한 소재의 차원을 넘어서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이며, 동시에 작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현현하는 효과를 지님으로써 작품 이해의 현재성을 재고하는 요인이 된다.<sup>7)</sup> 특히 시조에서의 시적 공간은 단순한 시적 의장(意匠)으로서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시의식과 시인의 내면의식이 밀착되고 대상과 일체화되어 살아가는 공간으로 사용됨으로써 시세계를 규명해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sup>8)</sup>

그런 면에서 다음 시조에 나오는 시적 공간들은 시인의 시의식을 형상화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수 가꾼 자하산사/ 꿈도 있었건만  
빌라로 둔갑된 훈/ 박제된 허수아비  
이곳을 떠나 옮겨지니/ 속빈 강정만 같을 뿐.

2

상계(上溪) 하계(下溪) 썩은 물가/ 3, 4년을 살았어도  
굳어만 진 고립의 벽/ 서먹하던 짝도 잃고  
외롭만 다가서 오네/ 지난 날만 되살아나.

7) 한원균, 「한국 현대문학과 도시공간의 의미」, 『한국문예창작』 14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8, 7면.

8) 박영우, 「김혜순 시의 시적 공간」, 『국어문학』 47집, 국어문화회, 2009, 160면.

4

이젠 아들 따라/ 강남으로 옮겨왔다  
여기는 삼전도 근처/ 아세아 선수촌 옆  
희비의 그림자도 짙어/ 숨결 모아 삼킨다.

5

아직도 사람이기/ 미련도 애착도 있다  
내 삶의 흔적들을/ 남겨 두고도 싶다.  
내 문힐 산언덕에다/ 작은 집도 짓고 싶다.

- 「요즘의 심정」 부분

인용시는 1994년 창작된 작품으로 부인과 사별하고 종로구 부암동에서 아들을 따라 잠실 아파트로 이사한 후 창작된 시조이다. 이 연작시조에서 보면 첫째 수에서는 자하산사, 둘째 수에서는 상계, 하계동, 셋째 수에서는 강남 잠실동, 넷째 수에서는 ‘내 문힐 산언덕’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인은 젊을 적 꿈을 가꾼 ‘자하산사’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하다. 그곳은 비록 누추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텃밭도 있는 무엇보다도 꿈과 정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그러나 개발로 인해 빌라로 둔갑된 후 “박제된 허수아비”나 “속 빈 강정”이 되었을 뿐이다. ‘상계’ ‘하계’의 썩은 물가보다도 못한 고립과 고독의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거기에다가 부인마저 가버리고 아들 따라 이사 온 강남의 아파트는 ‘삼전도’의 아픈 역사마냥 “희비의 그림자”가 짙은 공간이다. 그래서 노년의 시간들은 항상 옛 공간에 옛 추억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하다. 그런 안타까움이 넷째 수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삶에 대한 미련이나 애착보다는 삶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한다. 결국 그리움의 끝은 자신의 육신이 문힐 고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조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어린 아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알토 테너들의/ 가녀린 아우성이  
노을 진 하늘가로/ 솟아 솟아 퍼져 간다.

그 둘레 길찬 앞날인 듯 노을빛도 어린다.

어둠이 다가와도/ 그 들램 멋지 않고  
세상의 검은 그림자/ 먼 산속 메아릴 뿐  
아름이 장미야 부르는/ 소리 또한 드높아.

흙투성 손을 잡은/ 엄마들의 가슴에도  
밝은 등불들이/ 어둠도 삭히는 듯  
계단을 짝어 오르는/ 내일만이 있는 듯.

- 「어린이 놀이터」 전문

이 작품에서 어린 아이와 젊은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는 노인은 같은 공간에 있으나, 서로 분리되고 격리되어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만 타자의 입장에서 젊은 모녀를 바라보는 노인의 내면의식만이 작품 안에 가득하다. 젊은 모녀를 바라보는 노인의 심정은 이중적이다. 언뜻 순수하고 발달하고 '희망적'인 것 같지만 그들의 앞날은 '노을빛'이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오직 아이의 미래만 생각하는 오늘날의 가족과 현실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 시조에서는 현실의 경계에서 벗어나 유리된 채 살아가는 노년의 삶과 또한 노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젊은 세대나 미래 세대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이 '놀이터'라는 공간을 통해 잘 형상화된 작품이라 하겠다.

다음은 '길'이나 '역'을 시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두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만나고 헤어지는/ 이 골목에 외로 서니  
동공은 동공 따라/ 전등불에 감기운다.  
살아온 색깔들 위에/ 바뀌 쉬는 숨결인 채.

계절 따른 이야기들/ 발걸음 뒤로 잊고  
철마에 목이 매여/ 갈마드는 그 길 따라  
그 모든 뜬 구름으로/ 아쉽 밟고 가는가.

- 「간이역에 서서」 전문

여행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는 작품에서도 시인은 여행의 설레임이나 여행지의 풍광을 그려내기보다는 ‘뜯 구름’ 같은 쓸쓸한 삶의 내면 풍경을 그려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노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간이역의 풍경은 오는 것보다는 가는 것에 초점이 더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선은 다음 시조에서처럼 먼 들판의 풍경 속으로 이동하며 노년의 헛헛한 내면 공간을 채우고 있다.

저저 일어서니 천길 만길 낭떠러지  
그 아래 허룻간에 모과수 열매 뵈다.  
엇물린 섯소리는 높아 비지땀을 쏟는데.

매뚜긴 자취 없고 벼이삭은 익어간다  
길 잃은 황새만이 목을 들고 서 있는데  
지나는 소나기 한 자락이 노을 속을 스친다.

드넓은 공간속도 성이 차지 않는데  
단칸 셋방에는 봄기운이 오고 간다.  
이 어둠 밝힐 여명 따라 손을 모는 이 길목.

- 「이 길목에서」 전문

이 시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시적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첫째 수에서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서 ‘엇물린 섯소리’만 요란한 공간이고, 둘째 수에서는 ‘한 자락 노을’이 지는 ‘길 잃은 황새’만이 외로이 목을 들고 서있는 들판이다. 웬지 시인의 노년이 외로운 황새에 투사되고 있다. 그러나 시적화자는 셋째 수에서 노을 속으로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운명적 현실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단칸방’이라도 ‘봄기운’이 오가는 ‘여명’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은 아내와 어머니를 떠나보낸 심정을 표현한 두 편의 시조를 살펴볼도록 하겠다.

팔순 한 평생을/ 사는 듯 살도 못하고  
한 마디 말도 못한 채/ 떠나간 그대 모습

봉긋한 무덤에 누워/ 부슬비에 젖는가.

피려던 열여덟에/ 귀밑머리 풀고 와서  
어렵사리 살림살일/ 말없이 꾸려주고  
사남땀 키워 키워서/ 보란듯이 세웠고.

회한은 비바람 되어/ 문뚝 문뚝 감겨온다.  
아침 저녁 상머리에/ 앉은 듯 어리는데  
그 미소 안개 속으로/ 아스라이 숨는다.

- 「작은 떠나고」 전문

이 시조의 시적 공간은 무덤과 아침, 저녁의 밥상머리이다. 육십 여년을 같이 산 아내를 떠나보낸 후 느끼는 절절한 심정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으면서도 첫째 수에서처럼 “사는 듯 살도 못하고”라고 표현함으로써, 생전에 제대로 잘해주지 못한 이제는 홀로 된 팔십 노년의 안타까운 정서가 시조의 정결한 울격 속에 효과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떠나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이제 ‘봉긋한 무덤’으로 시각화되고 있을 뿐이다.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는 생사의 경계선상에서 시적화자는 ‘부슬비’처럼 울먹일 뿐이다.

그러한 그리움의 정서는 셋째 수에서 매일 받는 ‘아침, 저녁 밥상머리’에까지 찾아오고 있다. 뒤늦은 후회는 회한이 될 뿐이고, 그리운 모습은 보일 듯 말 듯 ‘안개’처럼 숨어있는 피안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처럼 애뜻하고 안타까운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다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전이되고 있다. 1992년 앞의 작품보다 1년 후에 창작된 다음 시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머님 방망이 소리 언덕 기어오르고  
햇빛은 물무늬 타고 재롱지어 퍼지는데  
땀방울 엷힌 미소가 어제 같은 먼 기억.

밭가승 물장구를 지키시던 그 눈길은  
우리들의 오늘을 꿈으로만 간직한 채

그 벌써 가신 지 60여 년 사진만을 더듬고,

언제나 내편이시던 어머니 주신 그 힘  
내 삶의 지팡이로 세파를 헤쳐 왔는데  
묘소의 잡초와도 같이 그 미소 다시 봤으면—

—「어머님」 전문

이 작품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평생 짝을 떠나보낸 시적화자의 마음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하다. 첫째 수나 둘째 수에서 시적화자가 노니는 공간은 유년의 기억 속이다. 그 공간들은 마치 어제의 일인 듯 너무도 선명하고 꿈같은 ‘어머니의 미소’와 같은 따뜻한 장소들이다. 그러나 이제 모두를 떠나보낸 노년의 화자 앞에 남아있는 것은 60여 년 전의 사진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움의 공간은 이제 실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흑백사진이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다음 작품과 같은 ‘공허’한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창 위로 펼친 공간/ 겹뽀연 무한지대  
아름찼던 문계구름/ 어린 꿈으로만 남고  
그 돌레 돌레엔 그저/ 소음만이 얽힌다.

운해는 바달 덮은/ 한라 마루 섰던 그날  
창공은 가도 없고/ 햇살 다사롭던  
그 먼 날 더듬어 보며/ 창을 가만 닫는다.

자락자락 떠도는/ 새털 구름비단 구름  
그림자 드리우며/ 산언덕 멀리 떠서  
지금도 먼 고향에선/ 주인들을 부를거다.

—「공허」 전문

그러나 시인이 진정으로 찾아가고자 하는 그리움의 공간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화(無化)된 공허한 공간은 아니다. 앞의 시조의 셋째 수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에 떠서도 그림자 드리우는 머나먼 고향의 주인들을 부르는 ‘새털구름’이고 ‘비단구름’이 되어 죽어서도 세상과 함께 하고 싶은 시적화자

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현실 속 공간은 ‘뜬 구름’ 같은 쓸쓸하고 헛헛한 실재하지 않는 내면의 공간들이다. 그래서 시인은 그 공간들을 지나간 추억과 그리움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 한다. 그 그리움은 ‘유년’, ‘어머니’, ‘고향’, ‘자연’과 같은 원초적이고 회귀적이며 정이 스며있는 따뜻한 공간들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자아성찰을 통한 죽음의식의 육화(肉化)

자신의 이야기를 말함에 있어 ‘죽음’은 경험 이후 혹은 경험 초월적인 것인 까닭에 실제로는 ‘말해질 수 없는 것을 말하기’의 본질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죽음’이란 그리고 ‘죽음’을 기다림이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려는 ‘육망’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지점<sup>9)</sup>이라 할 수 있다.

장자는 ‘늪음’이 생활에 안일(安逸) 즉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특성이 있다고 말한다. 노년에 이르러 안일을 누린다는 것은, 무위도식하거나 봉양받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일을 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숙련(외물과의 대립을 넘어선)에서 오는 편안함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힘겨운 노동,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서의 일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늪음이 가져다주는 ‘안일’이란 몰아일체의 경지에서 도를 체현하는 삶의 양태<sup>10)</sup>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노년기의 독거(獨居)에서 ‘홀로임(獨)’은 무한한 포용성을 지니고서 만물과의 소통을 이루어내는 초월적 생명의 기점이었다. 그것은 ‘홀로-함께임’인 것이다. 장자철학에서는 인생의 그 어느 시기도 노년일 수 있고 역으로 노년은 노년이 아닐 수도 있다. 물화(物化)를 바탕으로 하는 장자철학에서 인생은 하나의 커다란 꿈이자 순간순간이 모두 진리요 구현일 수 있기 때문이다.<sup>11)</sup>

9) 서형범, 앞의 논문, 27면.

10) 유병래, 앞의 논문, 93-94면.

그런 면에서 시인이 시를 쓰는 행위는 곧 인간에 대한 관심의 산물이고, 진실로 인간을 구제하려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삶의 본질에 눈뜬 시력을 갖게 함으로써 자기 성찰과 자기 확대를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는 도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죽음을 목전에 둔 노년에 느끼는 고독감은 더더욱 자아성찰을 위한 시간들의 연속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태극 시인은 자아성찰을 통한 노년의 죽음의식을 어떻게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용달샘 줄기 모여/ 길을 찾아 흐르도다  
 소나기 쏟아지면/ 소용 도는 흙탕물로  
 들판도 산더미도 마냥/ 밀어치고 아우성.

날 들면 말간 물결/ 소도 되고 여울도 되어  
 만물의 젓줄로서/ 하늘과 입 맞춘다.  
 내 이제 이 물가에 서서/ 내 마음을 비워본다.

- 「물」 전문

이 시조는 물을 제재로 하여 시적화자의 내면을 비추어내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물은 창조의 신비, 탄생, 죽음, 부활, 정화와 구원, 비옥과 성장, 무의식을 강물은 죽음과 재생, 시간이 영원으로 흘러들어감, 신성의 육화<sup>12)</sup> 등을 상징한다. 첫째 수와 둘째 수의 종장에 이르기까지는 ‘만물의 젓줄’로서 생명성의 원천으로서의 물의 의미를 나열하고 있다. 그러다가 둘째 수 종장에 와서 결국 시적화자는 ‘하늘과 입맞춘’ 물가에서 나를 비우고자 한다. 그리고 그 시점과 공간은 “내 이제 이 물가”이다. 이는 초장의 질풍노도의 삶과 온갖 세파를 다 겪고 난 후의 정화된 ‘말간물’이다. ‘나 이제’라는 시점 역시 그런 상태가 다 지나가고 정화되고 정리된 시점의 ‘나’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단절된 삶의 끝이 아닌 순환하는 또 다른 재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다.

11) 유병래, 앞의 논문, 109면.

12) 이지엽, 『현대시 창작 강의』, 고요아침, 2005, 256면.

‘차’를 제재로 하고 있는 다음 시조에서도 시인의 그런 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차 한 잔 놓고 눈 지긋 감아본다  
지난 세월 실꾸리로 언뜻 언뜻 스쳐간다  
창밖엔 곳은 빗소리 어둠으로 밀려들고.

눈을 떠 찻잔 보니 가물 가물 삶의 모습  
은은한 향에 쌓여 아스라이 굽이 돈다  
넘어갈 고깃길들은 감겨 감겨 들어오고.

다 식은 찻물 속에 파리가 투신했다  
꺼져가는 불속으로 부나비가 다뤄든다  
꿀벌은 소리도 나직히 꽃술 꽃술 파드는데.

- 「차 한 잔 놓고」 전문

이 시조에서 시적화자는 홀로 고독하게 차를 마시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읽다보면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차가 다 식어가도록 지난 삶을 반추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고즈넉한 시적 공간은 ‘빗소리 어둠’으로 밀려들고, 삶의 모습들은 ‘가물가물’한 죽음의 공간이다. 그런 찻잔의 공간 속으로 파리가 투신을 하고 부나비가 다가서지만, 시적화자는 그런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그 순간에도 ‘꿀벌’이 ‘꽃술’을 파고드는 생명의 공간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장승’을 제재로 한 다음 시조에서도 ‘죽음’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삶의 길목 따라/ 부러린 눈망울로  
액운과 버티면서/ 고장 지킨 장승인가  
휘모는 비바람 속에서/ 웃음 또한 잊은 듯.

꽃가마 맞아주고/ 상여도 보내면서  
사시절 그 얼굴로/ 세월 자락 다독이며

지나온 공허는 잊은 채/ 앞만 바라 섰는 너.

- 「장승」 전문

‘장승’은 마을의 수호신이나 이정표 역할을 하기 위해 세워둔 사람 모양의 통나무이다. 대개 남녀 쌍으로 세워 기둥에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지하 여장군(地下女將軍) 등의 글씨를 새긴다. 그 장승에도 시인의 의식이 투사되고 있다. 그냥 여행길에 지나치는 장승이 아닌 힘들었던 시인의 상흔이 육화된 장승으로 서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장승은 그 어려운 세월을 잊고 건디며 앞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어쩌면 사후에도 “꽃가마 맞아주고, 상여도 보내면서” 지나는 길손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싶어 하는 시인의 영원한 삶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태극 시인의 시조에 나타난 죽음의식은 현실세계와의 단절이나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자연과 물아일체(物我一體)되고 육화된, 순환하는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생명의 의미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맺음말

이상 이태극 시조에 나타난 노년과 죽음의식에 대한 시의식의 표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태극 시조시인의 노년기 작품에 대한 연구는 한 시인의 시적 성과나 의의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년층의 객관화된 내면을 살핀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의 시조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으로는 자연 심상을 통한 노년의식의 형상화를 들 수 있다. 1990년(78세) 이후 창작된 전집에 수록된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심상은 ‘꽃’, ‘나무’, ‘노을’, ‘물’ 등 자연과 관련된 심상들이다. 보통 꽃은 생명성과 신비성이나 순결미 또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 등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의 시조에 나타난 심상들은 미적 탐구 대상이거나 긍정적인 의식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시인이 세속에 살면서도 거기에 안주할 수 없는 노년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가 자연 공간의 상관물 속에 투영되고 있다.

결국 자연 심상을 통한 창작 과정에서 시인이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의식은 “다듬어 보듬어 안고” 남은 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지나온 삶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후회나 회한 없이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다. 또한 평생을 고고한 ‘난향(蘭香)’으로 살고 싶어 한다. 이것은 시인이 살고 싶어 하는 정신적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그의 스승이었던 가람 이병기가 그랬듯이 끝까지 정결하고 고결한 삶을 지키고 싶어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 하겠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채움’을 지향하는 그리움의 공간을 추구하는 것이다. 시적 공간은 단순한 시적 의장(意匠)으로서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시의식과 시인의 내면의식이 밀착되고 대상과 일체화되어 살아가는 공간으로 사용됨으로써 시인의 시세계를 규명해내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1990년 이후 창작된 시적 공간들은 이태극 시인의 시의식을 형상화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공간들은 대체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었을 “희비의 그림자”가 짙은 공간들이다. 그래서 노년의 시간들은 항상 옛 공간·옛 추억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으로 가득하다. 또한 그 공간들은 삶에 대한 미련이나 애착을 표현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품이나 ‘고향’과 같은 원초적이면서 회귀적인 공간들이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자아성찰을 통한 죽음의식이 육화(肉化)된 표현들이다.

대표적으로 ‘물’의 이미지를 한 시편들에서 주로 시적화자의 내면을 비추어내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물’의 의미를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과 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승에서의 죽음의 의미가 단절된 삶의 끝이 아닌 순환하는 또 다른 재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과 죽음의 문제가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즈음에 이태극 시인의 후기 작품들을 중심으로 노년과 죽음의식에 대한 표현 양상들을 살펴보는 일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논의라 여겨진다. 이 논의를 계기로 시나 시조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제어: 이태극, 시조, 노년의식, 죽음의식, 시의식, 표현양상

## 〈참고문헌〉

- 박영우, 「김혜순 시의 시적 공간」, 『국어문학』 47집, 국어문학회, 2009.
- 서형범, 「노년문학의 세대론과 전망」, 『시민인문학』, 경기대인문과학연구소, 22호, 2002.
- 유병래, 「장자 철학에서 노년의 삶」, 『시민인문학』, 경기대인문과학연구소, 22호, 2002.
- 유성호, 「자연과 인간의 공존, 시조를 통한 자기 인식; 월하 이태극의 시조 세계」, 『배달말』 36호, 배달말학회, 2005.
- 이지엽, 『현대시 창작 강의』, 고요아침, 2005.
- 이태극, 『이태극 시조 전집』, 태학사, 2010.
- 한원균, 「한국 현대문학과 도시공간의 의미」, 『한국문예창작』 14호, 2008.

## 【국문초록】

월하(月河) 이태극(1913-2003) 시조시인은 1913년 강원도 화천군 출생으로 1950년(38세)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53년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1978년 정년퇴직 때까지 고전문학 및 시조 연구와 창작에 몰두해왔다. 특히 1960년 시조 전문지 『시조문학』을 창간하여 편집인과 발행인을 맡아왔으며 특히, 1964년 한국시조시인협회가 발족된 이후 협회 부회장 및 회장직을 거치면서 가람 이병기 이후 한국 현대 시조문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대표적 시조시인인 이태극 시조시인의 노년기 작품들을 탐구하는 일은 한 시인의 시적 의미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년층의 객관화된 내면을 살핀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의 시조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으로는 자연 심상을 통한 노년의식의 형상화를 들 수 있다. 그의 시조에 나타난 자연 심상들은 미적 탐구 대상이거나 긍정적인 의식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시인이 세속에 살면서도 거기에 안주할 수 없는 노년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가 자연 공간의 상관물 속에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채움’을 지향하는 그리움의 공간을 추구하는 것이다. 시조에서의 시적 공간은 단순한 시적 의장(意匠)으로서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세상을 살아오면서 겪었을 “희비의 그림자”가 짙은 공간들이다. 그래서 노년의 시간들은 항상 옛 공간에 옛 추억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으로 가득하다. 또한 그 공간들은 삶에 대한 미련이나 애착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품이나 ‘고향’과 같은 공간들이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자아성찰을 통한 죽음의식이 육화(肉化)된 표현들이다.

대표적으로 ‘물’의 이미지를 한 시편들에서 주로 시적화자의 내면을 비추어 내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생명성의 원천으로서의 물의 의미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물과 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승에서의 삶이 단절된 삶의 끝이 아닌 순환하는 또 다른 재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시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s】

## Research on the Sense of Old Age and Death Depicted in Lee Tae-Geuk's Sijos

Park, Young-woo

Wallha, Lee Tae-Geuk(1913-2003) was born in Whacheon, Gangwon Provinc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50 and began to serve as a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in 1953 until he retired in 1978. He devoted his whole life to researching on ancient Korean literature and writing sijos. He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modern sijos after Garam, Lee Byeong-Gi, through founding a magazine, *Sijo Literature* and serving as an editor and publisher.

He wrote his first collected sijo work, *Flowers and a Woman* published by Dongmin Publishing Company in 1970, followed by *Skylark* by Iljisa in 1976, *The Sound, Sound, Sound* by Munhaksinjo in 1982, *Sunlight is There* by Siminmoonwhasa in 1990, *Jaha Mountain Temple and After* by Tobang in 1995 and *The Love Song of Azealea* by Taehaksa in 2001. He also wrote many books about sijo research, such as *Comments on Sijo Research* by Eulyoo in 1965, *Writing Modern Sijo* by Jungeumsa in 1981, *Theory and Practice of Modern Sijo* by Dongbaekmoonwha in 1990, and *Subtracted and Added Introduction to Sijo* by Bando in 1992.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Lee's sijos published since 1990 to survey

the poetic expression patterns of the sense of old age and death depicted in his work.

The first chapter explored the old poet's poetic consciousness and expression patterns used to depict nature through investigating the method of embodying the sense of old age.

The second chapter surveyed how the poet's point of poetic consciousness is embodied through looking into his works whose motif is 'family', 'hometown', 'travel'.

The third chapter investigated the poetic consciousness of the old poet who is facing death by studying the way of poetically embodying the sense of death through self-reflection.

When we consider Korea is approaching an aging society, it is meaningful to investigate Korea's representative sijo poet, Lee's works concerned with the sense of old age and death. I hope this research will be followed by many other researches which are concerned with the sense of old age and death.

Key word : Lee Tae-Geuk, sijo, sense of old age, sense of death, poetic consciousness, expression pattern

이 논문은 2012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7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